

##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의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무교동 관광공사(박태원 생가터)-삼일빌딩 베를린광장-우미관터-수표교-광장시장

## 6 신동엽의 종로5가

종묘-종로5가 서시오판-창신동 백남준을 기억하는집

##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앞 표석-낙원동 책방 마리서사-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광흥창 터-공민왕 사당-와우정(와우아파트 터)-당인리발전소-경의선책길-김대중기념도서관

##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한전사옥-스카라극장(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계동

##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 11 손창섭의 길

필동 한옥마을-남산 문학의집-안중근기념관-회현동

##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한무숙문학관-대학로-낙산-효제초등학교

## 13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창의문-현진건 집터(옛 무계동)-이광수 홍지동산장-평창동 박종화 가옥-영인문학관

## 14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세운상가 옥상-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개벽사 터-천도교 중앙대교당-운현궁

##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적선동-세종로-종각(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 영성문

## 16 손장순의 한국인

회현동-남대문시장-대한상공회의소-북창동-공평도시유적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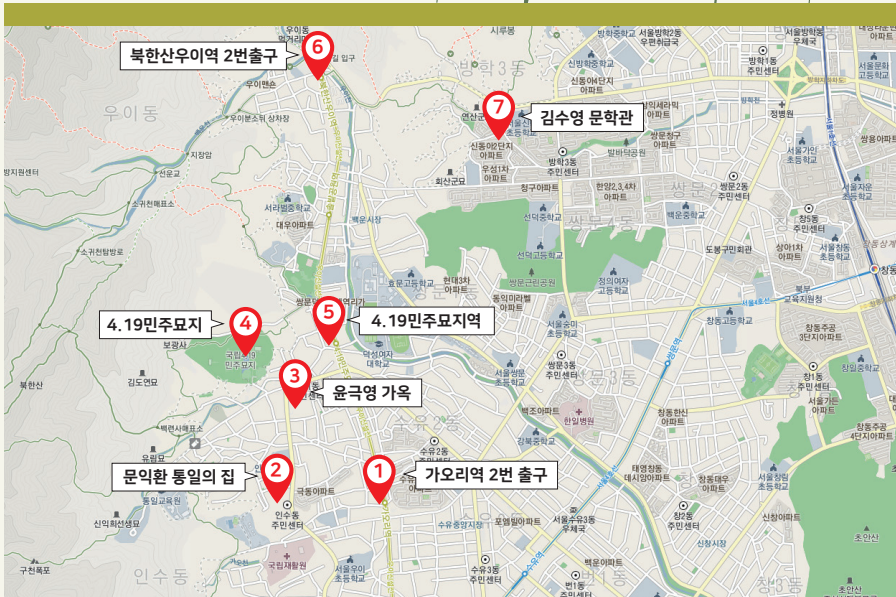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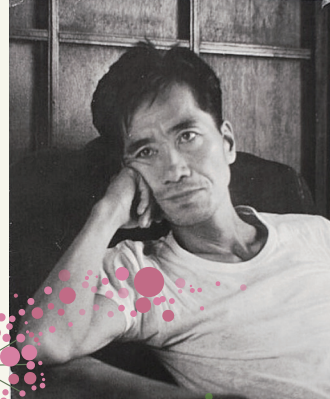




## 제3회 『김수영의 뿌리』

### 코스 순서

- ① 경전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2번 출구 앞 집결
- ② 문익환 통일의 집
- ③ 윤극영 가옥
- ④ 4.19민주묘지
- ⑤ 4.19민주묘지에서 우이신설선 승차
- ⑥ 북한산 우이역(도선사입구)에서 하차 2번 출구서 재집결
- ⑦ 김수영문학관



## ▶ 세부 일정



- 출발 : 가오리역 2번 출구
- 경유 2 : 윤극영 가옥
- 경유 4 : 북한산우이역 2번 출구
- 경유 1 : 문익환 통일의 집
- 경유 3 : 4.19 민주묘지
- 도착 : 김수영 문학관

- ▶ 가오리역 2번 출구(2시 집결) → 도보 이동(10분 소요) → 문익환 통일의집(20분 관람) → 도보 이동(10분 소요) → 윤극영 가옥(20분 관람) = 1시간 소요
- ▶ 도보 이동(10분 소요) → 4.19민주묘지(20분 관람) → 도보 이동(10분 소요) = 40분
- ▶ 4.19민주묘지역(지하철이동 5분 소요) → 북한산 우이역(2번출구 앞에서 재집결 5분 소요) → 왕실묘역길(북한산둘레길) 도보 이동(20분 소요) → 김수영 문학관(40분 관람과 해산) = 1시간 20분 소요



▶ 일 정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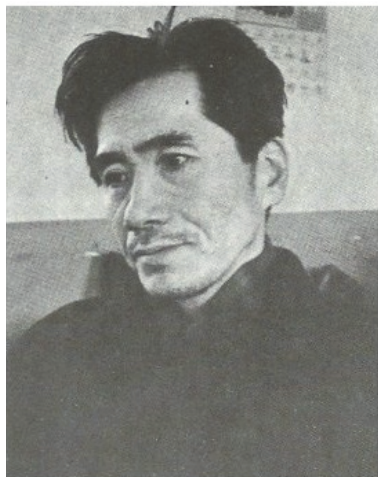
회차	수요일 (10시)	토요일 (14시)	주 제	코 스	해 설
1	6/12		서정주의 국화원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문학평론가 이경철
2	6/19		운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운동주 하숙집-운동주문학관-서시 시비	서울대 방민호교수
3		6/29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외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문학평론가 진은경
4	7/3		백석의 나와 나타사와 현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시인 박미산
5		8/31 (오후7시 ~10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무교동 관공사(박태원 생가터)-삼일빌딩 베를린광장-우미관터-수표교-광장시장	황미선/신수경 (서도연 연구원)
6	9/4		신동엽의 종로5가	종묘-종로5가 서시오판-창신동 백남준을 기억하는집	시인 박미산
7		9/14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앞 표석-낙원동 책방 마리서사-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안양대 맹문재교수
8	9/25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광흥창 터-공민왕 사당-와우정(와우아파트 터)-당인리발전소-경의선책갈-김대중기념도서관	권해상 (서도연 연구원)
9		10/5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한전사옥-스카라극장(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계동	박정아 (서도연 연구원)
10		10/12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김미선 (서도연 연구원)
11	10/23		손창섭의 길	필동 한옥마을-남산 문학외집-안중근기념관-회현동	한이수 (서도연 연구원)
12	10/30		임하 네거리의 순이	한무숙문학관-대학로-낙산-효제초등학교	전해경 (서도연 연구원)
13	11/6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창의문-현진건 집터(옛 무계동)-이광수 홍지동산장-평창동 박종화 가옥-영인문학관	이지현 (서도연 연구원)
14		11/16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세운상가 옥상-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개벽사 터-천도교 중앙대교당-운현궁	최서향 (서도연 연구원)
15	11/20		정비석의 자유부인	적선동-세종로-종각(옛 화신백화점)-을지로 입구(옛 아서원)-덕수궁 영성문	강영진 (서도연 연구원)
16		11/30	손장순의 한국인	회현동-남대문시장-대한상공회의소-북창동-공평도시유적전시관	심홍식 (서도연 연구원)

## ▶ 작가 소개 및 연보

### ▶ 서울 속 문학이야기 제3회 『김수영의 뿌리』



▶ 1966년 무렵의 김수영



▶ 1960년대 후반의 김수영



▶ 1961년의 김수영



▶ 1960년대 후반의 김수영

## 연보

- 1921년 11월 27일(음력 10월 28일) 서울 종로2가 관철동 158번지에서 출생.  
 1924년 (4세) 조양(朝陽) 유치원에 들어감.  
 1935년 (15세) 선린상업학교 전수부(야간)에 들어감.  
 1940년 (20세) 용두동의 집을 줄여 다시 현저동(峴底洞)으로 이사.  
 1941년 (21세) 선린상업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감.  
 1944년 (24세) 가족들이 있는 만주 길림성(지린성)으로 떠남.  
 1945년 (25세) 시 '묘정의 노래'를 <예술부락>에 발표하며 등단.  
 1946~1948년 (26~28세) 문인들과의 만남 및 외국 잡지 번역  
 1950년 (30세) 김현경(金顯敬)과 결혼, 돈암동에 신혼살림을 차림.  
     한국 전쟁 발발 후 의용군으로 강제 동원된 후 탈출, 곧 체포됨.  
 1951~1952년 (31~32세) 거제 수용소로 이동.  
 1953년 (33세) 석방 후 부산으로 감.  
 1954년 (34세) 서울로 돌아와 주간 <태평양>에 근무.  
 1957년 (37세) '폭포' 발표.  
 1959년 (39) 첫 시집 『달나라의 장난』 출간  
 1960년 (40세) 4·19를 계기로 열정적으로 작품 발표.  
 1961년 (41세) 시와 시작(詩作) 노트를 계속 발표.  
 1968년 (48세) 6월 15일 사망.  
 1969년 시비 건립.  
 1974년 9월, 시선집 [거대한 뿌리] 출간(민음사).





▶ 1961년 여동생 수명씨의 졸업식에 모인 김수영과 가족들. 왼쪽부터 부인 김현경, 모친, 수명, 수영, 수환.



▶ 부인 김현경

## ▶ 작품세계

‘풀’의 시인 김수영. 그는 서울 토박이다. 그러나 서울 안에서 그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두 개의 비석과 표지판 하나가 전부다. 1921년 종로구 관철동 탑골공원 건너편 시사영어사 앞에 ‘김수영 선생 집터’라고 소개한 비석과 도봉구 도봉동 도봉서원 앞에 놓은 시비(詩碑)다. 김수영 시인의 본가 자리는 도봉역에서 도봉 1동 주민센터를 지나 남쪽으로 걷다가 오봉 초등학교가 나오기 전, 오른쪽 길을 따라 걷다보면 나온다.

김수영은 1921년 11월 27일 서울 종로2가 관철동 158번지에서 대대로 부자였던 중인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김수영이 태어난 이듬해에 종로 6가 43-4번지(당시 117번지)로 이사해서 1세부터 14세까지 살았다. 해방 후에 김수영의 부친은 여기서 지물포를 열었다. 그래서 김수영의 글에 종로6가가 자주 등장한다.

김수영 집안은 일제 수탈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그의 나이 14세 때인 1934년 용두동으로 이사를 했다. 계속되는 가난으로 그의 가족은 1940년에는 집을 줄여 종로구 현저동으로 이주한다. 6.25 이후 김수영의 어머니가 총무로 4가에 ‘유명옥’이라는 빈대떡 집을 차려 생계를 이어가며 도봉동 선산 근처에 작은 양계장을 마련한다. 김수영은 한 달에 절반이상 도봉동에 살며 글쓰기, 번역 등 작업을 한다. 100평 정도의 본가 터는 지금 식당과 공장으로 바뀌었다.

6.25 전에 이미 김수영은 김현경과 결혼했으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바로 동거에 들어간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혼생활이었다. 그는 돈암동, 성북동, 마포 구수동, 도봉동 등을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 갔지만 그를 기억할만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그가 아내와 1960년대를 보낸 마지막으로 장만하게 된 마포 구수동 41번지에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다. 구수동 41번지는 현재 2차선 도로가 되어 버렸다. 1968년 6월 15일 김수영은 번역료를 받으러 나왔다가 소설가 이병주와 함께 ‘청진옥’에서 술을 마셨다. 그는 구수동 사거리 근처에서 인도로 뛰어든 버스에 부딪혀 쓰러진다. 그는 48세 나이에 교통사으로 생을 마감한다.

김수영 50주기 기념사업

# 50년 후의 시인

김수영 50주기 기념 학술대회 I  
- 김수영과 21세기: 세계화와 환경  
일차: 2019년 11월 27일(목) 14:00 - 18:00  
장소: 한국문화재단 강연장(경남 창원시)

김수영 50주기 기념 학술대회 II  
- 김수영과 21세기: 사회 삶의 이해  
일차: 2019년 11월 28일(금) 10:30 - 18:30  
장소: 한국문화재단 강연장(경남 창원시)

시인과 함께하는 기념문화제  
"물과 함께, 사람과 함께"  
(수업시간 50시간을 50명 학생 10명, 활동 참여)  
"김수영의 문화를 통해 김수영의 시를 이해" (주제: 문학)  
일차: 2019년 11월 29일(토) 10:30 - 18:00  
장소: 한국문화재단 강연장(경남 창원시)

김수영 50주기 기념 문학기행 - 1차  
"시인 김수영과 함께 걷는, 서울"  
일차: 2019년 11월 27일(목) 10:00 - 18:00  
장소: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강연장(경남 창원시)

김수영 50주기 기념 문학기행 - 2차  
"김영과 김수영의 연극"  
일차: 2019년 11월 28일(금) 10:00 - 18:00

김수영 50주기 기념 출간  
"시인과 함께 걷는, 서울" 모음집  
발행처: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 김수영과 시(詩)

김수영은 서울에서 삶을 마감한 도시적 시인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존심이 매우 셧고, 공부 또한 잘했다. 그러나 그는 체질적으로 몸이 약해서 당시 명문고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선린상고 전수와 야간부에 들어갔다. 그는 야간부에서 늘 수석을 차지했다. 아버지의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그는 이때부터 치열한 습작기를 갖는다. 습자인 산고 속에서 처음 내놓은 시 「묘정의 노래」를 1946년 『예술부락』에 발표했다.

남묘(南廟) 문고리에 굳은 쇠문고리  
기어코 바람이 열고  
열사를 달빛은  
이미 과부의 청상(靑裳)이어라

- 「묘정의 노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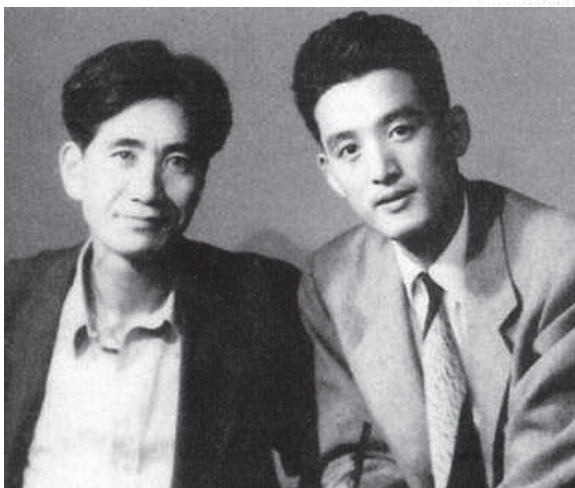
김수영은 일본에 건너가 도쿄 상대 입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으나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다 그는 대학에 입학도 못하고 귀국한다. 김수영은 「목마와 숙녀」를 쓴 박인환이 주도한 동인 그룹 <신시론>의 2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1949)에 합류한다. 현대 문명과 도시생활을 비판하던 그의 초기 시풍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은 6.25전쟁이었다. 그는 서울에 남았다가 의용군에 붙들리어 북한으로 끌려간다. 그는 인민군이 되었다가 탈출하여 집으로 오다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보내졌다. 이 때 쓰인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傷兵) 포로 동지들에게」라는 시에서 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6.25후에 개천 야영훈련소에서 받은 말할 수 없는 학대를 생각한다.  
북원훈련소를 탈출하여 순천 읍내까지도 가지 못하고  
악귀의 눈동자보다도 더 어둡고 무서운 밤에 중서면 내무성 군대에게 체포된 일을 생각한다.  
-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傷兵) 포로 동지들에게」 부분

김수영은 수용소에서 통역을 하다가 석방되었다. 6.25의 체험이 김수영에게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에 대한 비애, 설움,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껏

내뺄는 시어들이 되었다. 1959년 들어 그는 사랑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의 산문 「생활의 극복」에서 “나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김수영이 말하는 사랑은 ‘개인이 서로 유대를 맺고 사회 공동체로서 삶을 같이 하는 소셜리즘’이다.





▶ 절친 박인환 시인과 함께

## 김수영과 4.19





1960년에 들어서면서 김수영은 4.19와 5.16으로 시의 전환기를 맞았다. 4.19 직후에 김수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낯선 시어로 규탄하는 시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 「기도-4.19순국학도 위령제에 부치는 노래」, 「육법전서와 혁명」, 「푸른 하늘을」, 「만시지탄은 있지만」, 「〈4.19〉시」 등을 쓴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민주주의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학생들의 웅장한  
기념탑을 세우자  
아아 어서어서 썩어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짚개로 하자」 부분

시 같은 것  
시 같은 것  
써보려고 그러나  
〈4.19〉시 같은 것  
써보려고 그러나

- 「〈4.19〉시」 부분

그는 개인적인 세계에서 시인의 인식은 사회, 역사적, 세계적 인식으로 전환되고 혁명과 자유에 대한 이상을 토해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사회적인 비판을 즐기는 참여파 시인이었다. 그리고 「껌데기는 가라」의 시인 신동엽을 1960년경에 알게 된다. 김수영은 신동엽의 영향을 받아 현실과 경험에 바탕을 둔 시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죽음과 초월, 사랑을 노래했던 그의 시세계가 「눈」, 「4.19시」, 「거대한 뿌리」 등으로 알려지게 된다.

## ▶ 김수영문학관을 찾아서



김수영의 뿌리는 서울 도봉구에 있다. 김수영이 도봉구와의 인연은 30대 후반(1956년 경)이다. 본가가 바로 도봉으로 이주하면서부터다. 당시 그와 아내는 마포구 구수동에서 닭, 돼지를 길렀던 경험을 살려 본가에서도 양계를 했다. 도봉에는 아버지와 사별하고 혼자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살았다. 도봉은 그의 문학산실이다. 어릴 적부터 형제들과도 이야기를 별로 나누지 않고 방안에서 책장을 넘기며 놀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수많은 시들이 이곳에서 쓰였다.

김수영은 일본 도쿄에서 연출 공부를 할 때와 일제 말기 만주 길림, 6.25전쟁 다시 거제 수용소를 거친 젊은 시절을 빼놓고는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서울의 여러 곳을 전전하다 도봉에 이르러서야 유랑의 피가 멎었다. 그래서 그는 도봉의 시인이 되었다. 양계장과 도봉과 문학이 하나였듯이 그의 삶에 대한 애착, 가족사랑, 문학적 성취가 도봉에 깃들여 있다. 이 때 「여름 아침」(1956), 「채소밭 가에서」(1957), 「꽃」(1957), 「초봄의 뜰 안에」(1958) 등의 시가 그렇다. 이 중에서 「여름 아침」의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름 아침의 시골은 가족과 같다  
 햇살을 모자같이 이고 앉은 사람들이 발을 고르고  
 우리집에도 어저께는 무씨를 뿌렸다  
 원활하게 굵은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간밤의 쓰디쓴 후각과 청각과 미각과 통각(統覺)마저 잊어버리려고 한다  
 - 「여름 아침」 부분

비습 여사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보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네에미 씹이다 통일도 중립도 개쫓이다  
 은밀도 심오도 학구도 체면도 인습도 치안국  
 으로 가라 동양척식회사, 일본영사관, 대한민국 관리,  
 아이스크림은 미국놈 좇대강이나 빨아라 그러나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무식쟁이,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제3인도교의 물속에 박은 철근 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쯤벌레의 솜털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 「거대한 뿌리」 부분

그리하여 김수영 문학관은 2013년 11월 27일 도봉구에 문을 열었다(해등로 32길 80). 이 문학관은 육필 원고를 가장 많이 소장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문학관에는 『현대문학』 편집장이었던 동생 김수명이 소장한 유품과 가족들로부터 김수영 유품의 기증을 받았다. 기념관 안에는 김수영 연보 및 6.25전쟁과 4.19혁명, 5.16쿠데타 등 현대사의 질곡을 겪으며, 그가 온몸으로 표현한 시와 산문의 육필 원고가 전시되어 있다.

#### 김수영 문학관 안내

- ▶ 제1층 제 1전시실 : 시와 평론 중심전시, 김수영의 연보 및 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경험하며 이루어진 시작품과 시학을 전시
- ▶ 제2층 제 2전시실 : 산문 및 일상유물 전시, 김수영 시 안에 담긴 흐름과 특징을 김수영의 삶의 궤적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생각을 통하여 느껴보는 전시
- ▶ 제3층 작은 도서관 : 아동열람실과 도서관이 함께 있어 어른과 아동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 ▶ 제4층 대강당 : 각종 세미나, 시낭송회 등 대관 신청 시 무료 제공
- ▶ 제5층 옥외 쉼터 : 야외 쉼터 및 휴게 공간으로 관람 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 ▶ 도봉산 자락에 있는 김수영 시비

김수영 시인의 유해는 노모가 양계 농장을 하고 있던 도봉동의 집 근처, 도봉산 자락의 선영(先塋)에 묻혔다. 동료 문인들과 독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금을 모아 시인의 무덤 앞에 시비(1969.06.15)를 세웠다. 이 시비는 북한산국립공원 내 도봉서원 입구 근처로 이전했다. 그리고 1994년 도봉산 선영의 가족묘를 이장할 때 시인의 유해는 화장해 그 아래에 유골함을 만들어 묻었다. 시비가 곧 무덤이다. 시비의 앞면, ‘김수영시비(金洙映詩碑)’라고 쓰인 재자(題字)아래로, 오른쪽에는 시인의 얼굴을 양각한 동판을 붙였고, 그 옆으로 시 ‘풀’의 두 번째 연을 음각으로 새겼다. 글씨는 시인의 육필 원고를 확대한 것이다. 서예가 배길기가 쓴 제자의 단아한 붓글씨와 김수영의 날카로운 펜글씨가 잘 어울린다. 뒷면에는 ‘건립자의 말’을 간략하게 새겼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풀」 부분

김수영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풀>을 짓고 불과 보름 뒤에 시인은 죽었다. <풀>은 시는 1970년대 우리 사회의 여러 상황과 맞물리면서 참여시, 민중시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 시에서는 그가 주장하는 사랑의 시와 생명적 존재론을 보여준다.

김수영은 민초처럼 흔한 풀잎으로 살다가 풀잎으로 쓰러졌다. 그런 시인의 삶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 도봉구의 방학동에 있는 김수영 문학관과 도봉산 자락에 있는 시비이다. “시여 침을 뱉어라”란 말을 되뇌면서 김수영의 서울문학기행은 떠난다.



## ▶ 해설자와의 인연

내가 으스스하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으스스한 설움의 풍경마저 싫어진다.  
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을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버렸다.

- 「거미」 전문

「거미」가 쓰인 1954년은 김수영이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나온 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을 당시이다. 김수영은 이 시에서 ‘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을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버렸다’라고 털어 놓는다. 시의 화자는 ‘내가 으스스하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는 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설움의 감정이 북받치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설움은 ‘으스스하게 설움에 몸을 태우’면서 ‘바라는 것’을 향한 시인의 삶의 과정인 ‘시의 완성’에 지향함을 알 수 있다. 바로 김수영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내면 깊이 죽음을 의식한 ‘시적 언어의 성취’이다.

김수영을 만난 것은 박사과정 수업시간에 그를 만났다. 당시 그때는 대학가에 김수영의 시를 연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한 학기 수업 내내 김수영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였다. 김수영의 문학은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 사적인 문제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흔히 고백체의 형식을 취함을 알게 되었다. 1950~1960년대에 김수영이 보여준 시들은 극히 개인적인 생활에 가까운 내용을 시로 발표함을 아울러 그것을 보는 독자들에게 고백적인 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김수영의 고백시가 본격화되는 것은 미국의 고백시 시인들의 영향 속이라는 것이라는 물증을 찾게 되었다. 당시 김수영이 즐겨보던 잡지 『파르티잔 리뷰』(1964)를 살펴보다도 이들에 대해 자주 언급되고 있었다. 김수영의 영미시 번역 작품으로 대표적인 책인 『세계전후문제시집』(1962)에서는 김수영과 미국의 고백시과의 영향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이 책에서 김수영은 몇 명의 미국 시인들의 시를 번역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는 엘리자베스 비숍, 시어도어 윌트케, 델모아 슈왈츠, 로버트 로웰 등 1950년대 미국 시단에

서 고백시파로 불리던 시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고백시파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시인인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 1917년~1977년)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미국의 시대정신과 개인의 삶의 보편성을 주제로 자전적 형태의 시를 발표했다. 로웰은 자신의 시집인 『인생연구』(Life Studies, 1959)에서 삶의 진실과 은밀한 내적 경험의 특징을 지닌 고백시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시적 화자가 시인과 동일하며 시의 소재 또한 시인의 사적인 경험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에 김수영은 로웰의 고백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이유로 김수영은 『세계전후문제시집』에서 로버트 로웰의 다섯 편의 시 「숲에서」, 「참새 언덕」, 「술꾼」, 「에알드스 씨와 거미」, 「무지개가 끝나는 곳」을 번역하였다. 이는 김수영과 로웰과의 영향관계를 검토할 필요성으로 김수영에 대한 연구와 논문을 쓰게 되었다.

김수영이 번역한 『세계전후문제시집』에서 로웰의 시는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응시와 비판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수영의 시에서 1960년대 이후에 발표한 「죄와 벌」(1963), 「거대한 뿌리」(1964),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1965), 「이혼취소」(1966) 등에서 김수영은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폭로함과 동시에 고통 받는 자아의 고백적 목소리가 나타난다. 그 고백적 목소리는 자기반성으로 이어지며 현대 사회의 문명과 불의를 고백시로 표현한다. 그는 한국의 1960년대 시대상 속에서 자아를 성찰반성을 하며 그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고백시를 추구한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종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부분

고백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소외되고 고통 받는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에서 고통 받는 화자의 반성이 나타난다. 화자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며 반성하고 있다. 작은 일에만 분개하고 정작 더 중요하고 큰일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자신을 되돌아본다.



▶ 참고자료

진은경, 「김수영과 로버트 로웰의 ‘고백시’ 비교연구」, 『우리어문연구』, 2016.

▶ 참고작품

김수영, 『김수영 전집1,2』, 민음사, 2018.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화사, 2018.

장태동, 『서울문학기행』, 미래M&B, 2001.

방민호, 『서울문학기행』, arte, 2017.

## ▶ 문익환 통일의 집



영화 <1987>의 대미를 장식한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서 26명의 열사 이름을 목 놓아 부르던 이가 늦봄 문익환(1918~1994)이다. 그는 1918년 만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다. 문익환은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신학자이자 민주화 및 통일운동가였으며, 목회자인 동시에 시인이기도 했다. 민족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장준하가 그의 중학교(평양 숭실학교) 친구였다.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가 문을 닫자 간도의 광명중학으로 옮겼는데 이 때 정일권을 만난다. 정일권은 이승만과 박정희 밑에서 육군 참모총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주미대사, 외무장관 등 말 그대로 대통령을 뵈 모든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문익환은 1980년대 후반 장준하의 묘소에서 “동주여/너는 스물아홉에 영원이 되고/나는 어느새 일흔 고개에 올라섰구나/너는 분명 나보다 여섯달 먼저 났지만/나한테 아직도 새파란 젊음이다.”라고 노래한 바 있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던 그는 1968년 구약성서 번역 일을 맡으면서 문학에 눈을 뜬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성서를 옮기려는 시도는 선을 넘긴 그를 시의 세계로 인도한다. 1971년 봄 무렵부터 시를 썼다. 모두 5편의 시집을 펴냈

다. 『새삼스런 하루』, 『꿈을 비는 마음』,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두 하늘 한 하늘』, 『옥중일기』 등이다. 기념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은 이 시집에 실린 작품들과 신문, 잡지에 발표된 시 가운데 70편을 뽑아 묶었다. 1부엔 어린 시절 추억과 가족에 대한 애뜻함, 2부에는 민주화 노동운동현장의 작품들로 엮었다. 3부에는 통일 열망을 노래한 시들과 4부엔 종교인으로서 고뇌를 담은 시들을 수록했다. 시집을 관통하는 정서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다.

이쪽에 부는 바람에 저쪽으로 나부끼며 쳐다  
보는  
남녘 하늘  
저쪽에서 부는 바람에 이쪽으로 나부끼며 쳐다  
보는  
북녘 하늘  
그 두 하늘이 다르기라도 한가요

- 「두 하늘 한 하늘」 부분

「두 하늘 한 하늘」 시는 가족에 대한 애뜻함과 분단과 독재 등 우리 민족에 지워졌던 역사의 질곡, 민주화운동에 몸 바친 이들에 대한 애도 등을 두루 담았다. 그는 1970년대 말까지는 신학교수와 본연의 목사의 길에 집중하였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각성한 문익환은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를 계기로 58세였던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하며 반독재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뒤늦게 민주화운동에 합류하게 된 것을 의미를 담아 그의 이름 호는 ‘늦봄’이었다. 이때 일생의 동지였던 김대중과 인연을 맺는다. 그는 거의 환갑을 눈앞에 둔 나이였는데, 이후 199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18년 동안 6차례 투옥되며 11년 3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는 1989년 3월에 통일의 길을 열자는 목표 하에 북한을 방문한다.

그는 민주화 통일 운동을 이유로 가택연금, 가택수색을 당했다. 이 집에서 ‘3.1민주구국선언’을 썼다. 문익환은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김대중 함석헌 등과 기소된다. 문익환은 1994년 1월 18일 이 집 안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부인 박용길 장로는 ‘통일의집’이라고 현판을 직접 써 붙여 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통일 논의와 교육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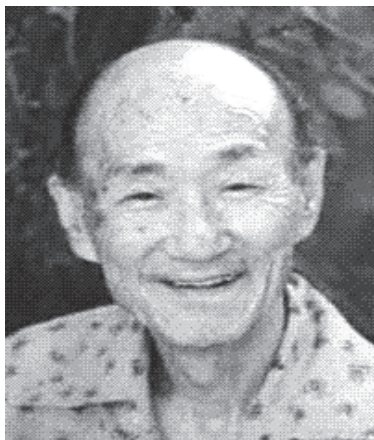


2011년 박 장로 타계 후 유족은 통일의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사단법인 통일의집이 발족한 2016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집에는 문 목사가 쓴 편지와 성명서부터 사진, 서예품, 미술작품 등 각종 자료가 2만 5000여점 남아 있다. 강북구 수유리의 한 주택가. 산자락을 배경으로 통일의 집으로 더 알려진 문익환 가옥은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역사의 현장’이다. 그가 꾸던 꿈은 여전히 통일의 집에 남아 있다.



▶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통일의 집

▶ 윤극영 가옥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라는 노래를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동요 ‘반달’이다. 이 노래는 동요 작사 작곡가이자 어린이문화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윤극영(1903~1988)선생의 노래이다.

서울에서 출생한 선생은 경성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일본에서 작곡과 성악을 공부하였다. 일본 유학 시절에 흥난파 방정환 등을 만나 교류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문화운동 단체인 ‘색동회’를 만들어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부친의 도움으로 자택에 ‘일성당(一聲堂)’이라는 음악공부방을 만들어 음악 공부를 계속 하면서 어린이들을 모아 음악을 가르쳤다. 이들을 모아 ‘다알리아회(합창단)’을 조직하여 (1924.8)음악을 환산시켰다. 이 때 반달(1924. 9)의 노래가 창작되었다. 반달은 선생이 1924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행한 어린이 잡지 ‘어린이’에 게재하면서 발표됐다. 이 노래는 당시 큰 호응을 받아 국내는 물론 만주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1924년 누이를 잃은 아픔과 나라를 잃은 슬픔을 삼키던 20대 청년, 윤극영은 낮에 뜬 외로운 반달이 선생이

아픈 마음을 만나 서정적인 노랫말로 태어났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요 ‘반달’이다.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라로.

- 「반달」 부분

1925년에 간도로 넘어가 동흥중학에서 교사 활동을 처음 시작하였다. 거기에서 윤석중이 지은 동시 〈우산셋이 나란히〉에 곡을 붙이고, 〈고기잡이〉는 직접 작사 작곡하였다. 1935년에 서울에 돌아와 1936년에 다시 일본 도쿄로 건너가 생활하였다. 그곳에서 〈반달〉 노래가 애창되고 있음을 알고 도쿄중앙방송국을 찾아가 처음으로 저작료를 받아 생활하였다. 이 외에 설날, 까치까치 설날, 할미꽃, 고기잡이, 피꼬리, 옥토끼노래 등의 창작 동요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면서 고드름, 따오기 등의 동요에 곡을 붙여 동요보급운동을 전개했다.

윤극영 선생은 1988년 11월 15일 향년 86세로 별세했다. 그가 타계하기 전인 1988년까지 거주하던 집인 윤극영 가옥은 2014년 10월 서울시 미래유산 1호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 곳은 자그마한 풍금 위에 놓인 반달 악보와 친필 원고 백 평방미터의 가옥에는 선생의 손 때 묻은 유품이 잘 보존되어 있다.



▶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윤극영 가옥



## ▶ 국립 4.19민주묘지



북한산을 배경으로 순백의 화강암 기둥이 푸른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국립 4.19민주묘지’ 앞쪽에 세워진 기념탑의 모습이다. 국립 4.19민주 묘지에는 1960년 4.19혁명 당시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185명의 영혼이 고이 안장돼 있다. 수유동에 있는 4.19 혁명 희생자를 위한 국립묘지이다.

1961년 정부가 1960년 발생한 4.19혁명 기념 공원묘지 조성에 의결하여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가 성역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목조 건물인 유영봉안소와 묘지, 4.19혁명기념관, 사월학생혁명기념탑, 상징문과 그 밖의 상징조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묘지 가운데 사월학생혁명기념탑이 서 있다. 조각가 김경승이 제작한 이 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탑문은 이은상이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김충현의 글씨로 새겨졌다.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능히 던질 수 있는 피의 정통이 융솟음치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진입로 앞에 세운 ‘민주의 뿌리’는 9개 기둥의 화강암 조형물로 민주주의 발원지임을 뜻하고 중앙 양측에 마련된 청동재질의 ‘자유투사’는 독재정권에 항쟁하는 모습을 담았다. 화강암 재질의 ‘정의의 불꽃’은 높이 9m의 불꽃현상으로 4.19의 정신을 뜻한다.



▶ 419민주묘지 시비 중 이성부의 손님

##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진은경



## 약력

1974년 출생. 2008년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의 시조부흥과 일본의 단가혁신 비교연구』으로 문학박사 학위. 『쿨투라』를 통해 영화평론으로 등단하였고, 『미네르바』 등에서 평론 발표. 박사과정에서 김수영에 대한 수업을 듣고 그를 알고 싶어서 소논문을 쓰게 됨. 주요 논문으로는 「김수영과 뢰트케의 고백시에 나타난 자연」(2017)과 「김수영과 로버트 로웰의 ‘고백시’ 비교연구」(2016), 『김수영 사전』(2012) 등이 있음. 그리고 『영화 <옥자>에 나타난 생태학과 에코페미니즘」(2018), 「식당을 매개로 한 한일 영상텍스트 연구:<윤식당>과 <카모메식당>을 중심으로」(2017), 「『엄마를 부탁해』와 <피에타>에 나타난 모성의 양가성 연구」(2014),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2006) 등으로 영화를 연구하고 있음.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 출강.



##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선착순 접수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http://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 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 2019 서울 문학 기행

---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http://www.suci.kr)  
발행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